MOTHER

A Letter Across Time



Ferdinando Frega – Nando the Scribe

Gillettenarrative.com

GILLETTE: 어머니

제가 어렸을 때, 어머니는 누군가에게 제가 태어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늘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셨어요. 제 첫 울음소리를 들으셨을 때 하신 질문이죠. “건강한가요?” 그래서 저는 몇 년 동안 아이들이 조립해야 하는 장난감처럼 조각조각 세상에 오는 줄 알았어요. 제가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은 웃었어요. 그러다 우리는 모두 자랐고,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.

먼저 자라는 몸이 와요. 그다음에 진화하는 힘이 와요. 그다음에 우리의 부모가 누구인지 일깨워 주는 뇌가 와요.

어머니와 저는… 처음부터 갈등이었어요. 우리가 언제까지나 갈라져 있으리라는 걸 깨닫는 데 5년이 걸렸어요. 어머니는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하셨죠. 하지만 제 절반은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— 그건 제 아버지였어요.

저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어요. 어머니가 사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으니까요.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지도 않았어요. 제 DNA에는 그런 코드가 없었으니까요. 하지만 저는 60년 동안 어머니의 분노를 짊어지고 다녔고, 몇 달 전 어머니의 무덤 위에 그것을 돌려드렸어요.

오늘은 어머니의 날이에요. 세상이 천 가지 일에 “고맙습니다”라고 말하는 날이죠. 하지만 감사는 말일 뿐이에요 — 나머지는 사실이에요.

그래서 저는 멀리서 어머니를 기려요. 원망은 없어요. 용서도 필요 없어요. 마침내 하나를 이해했기 때문이에요. 어머니가 제게 주지 않으신 것은 어머니에게도 없던 것이었어요 — 그리고 어머니는 그것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셨어요. 어머니의 부모님이 어머니에게 횃불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거예요.

어머니가 어디에서 저를 읽고 계시든, 이것을 남겨 드려요. 제가 어머니를 웃게 해 드렸던 모든 순간의 기억을요. 어머니는 언제나 제가 예상하지 못한 누군가라고 믿으셨으니까요.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. 저는 그저 어머니의 어린 아들이었어요.

안녕, 엄마.
Nando